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 향 락



지역 정치권이 훈란스럽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소위 두가지 '통큰 양보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모태이자 뒷발'이라며 "순천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를 끝하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양보 안하면 민주당은 죽는다"고 양보론을 피력했다.

대권을 쥐기 위해선 충청권을 안다가하고 그 대가로 과학벨트를 주어야 하니 유치 경쟁에 뛰어든 광주시가 포기하라는 얘기다. 또 야권연대만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과학벨트 양보 대상인가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7일 "민주당 손 대표가 '호남 양보론'을 주장하는 배경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광주와 충청, 영남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삼각벨트론'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준영 전남지사도 "정당의 존립 근거는 당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고, 선거는 이를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4·27 순천 보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방침에 반대한다"고 입장

민주당의 '집토끼·산토끼論'

을 밝혔다. 민주당의 모태인 이 지역에서 시장과 지사가 당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호남을 덮밥으로 하는 민주당의 역사행은 '집토끼'로 잡고 '산토끼'로 끌어안아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다. 하지만 과학벨트와 야권연대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그 때는 시쳇말로 '아니면 말고'라고 할 것인가. 정권 재창출을 가정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

통령이 재임 시 호남에 무엇을 해 주었는지 곱씹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과학벨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충청권은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오송생명 과학단지와 행정도시 세종시가 건설 중이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지역에 과학벨트까지 선물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호남인으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살만한 대구·경북권이 과학벨트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도 정치적인 빌미에 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없이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 국회의원도 그

통해 다른 쪽에서 대가를 일자는 것인데,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자세는 아니다.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순천시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거나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의정치에서 당의 무공천은 정체성 상실이라,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게 없다.

보선 무공천 민심이 반 불러

박주선 의원이 이를 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당 지도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연합이나 연대협상을 자선 사업가가 기부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 '표심'을 거래하겠다는 게 있을 법한 일인가.

벌써부터 무소속 후보의 난립이 고개를 드는 등 무공천에 따른 역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손 대표는 "호남에 이점을 드려 송구스럽다. 순천 양보는 고육지책이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설사 그 진정성을 이해하더라도 민심에 관한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여론은 곧 지역 민심이다. 당 지도부가 오늘 종으로 무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순리가 우선이다. 역리가 순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억지다. 민심은 순리일 뿐이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민주당의 '집토끼·산토끼論'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상당수 의원들이 광주시가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한 과학벨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의원총회를 통해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정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지역에서 비단 여론이 거세게 일자 마자 못해 내놓은 '뒷북'이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국회 개정안 제출이다.

순천 보궐선거의 야권연대 역시 철회의 대상이다. 무공천이라 함은 한쪽의 희생을

은펜칼럼

임명재



자연계에는 대류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공기의 흐름에 대류현상이 존재한다.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속에도 존재한다. 또 지구 속에 있는 맨틀이라는 성분도 이러한 대류를 갖고 있어 지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대류현상을 통해 너무 뜨겁지도 않게 반대로 너무 차갑지도 않게 자연의 곳곳을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기상현상도 이러한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뜨거우면 차기운 소나기가 내려 대

진학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에 있어 특목고가 일반고 보다 월등하다. KAIST의 분석에 의하면 일반고 고교 졸업생들보다 특목고 학생들의 초기 적응력이 훨씬 높다고 한다.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수준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쟁이 심화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정치지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선발을 하는 방식을 좀 더 대폭 손질을

대류현상이 없는 대한민국

지를 식혀주고 사계절이 발생한다. 아프리카나 적도부근의 지방은 일년 내내 덥고 극지방은 지독히 춥지만 하나님의 지구를 놓고 보면 역시 대류현상을 통해 지구 전체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대류현상은 참으로 조화로운 대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대류현상이 존재한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 베티고 살아가는 무겁고 차운 계층이 있고, 명절 연휴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데다가 가벼운 계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도 대류현상을 통해 삶이 역전되기도 한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인간의 생활이고 민주적인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점점 그러한 대류 현상이 부족해짐을 피부로 느낀다. 교육과 소매업에서 대류현성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 특히 심각하다. 가난한 유일한 길이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교육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서울대학교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 수준의 학습으로 충분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성과 비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심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와 탐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모의 주머니돈이 투입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대류현상이 정상화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소매업이다. 재래시장이나 주택가에 자리 잡은 각종 소매업들이 대기업 유통업체에 잠식당하고 있어서 민들의 통화 흐름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작은 소매업과 서민들이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유지되어야만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이 건강해지고 대류현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식주와 의료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사회로 진화할 수 있는 비전과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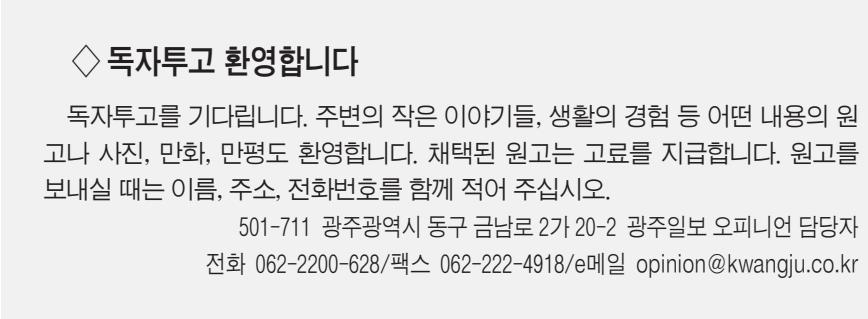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때문에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소형 트럭으로 생계를 꾸리는 서민들에게 기름값은 공포의 대상이다. 이유는 경유 트럭 소유자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경유값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덜 타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때문에 경유 트럭을 이용해 하루하루 살

아가는 서민들은 정부의 경유값 대책에 불만이 크다. 경유값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면 경유 트럭으로 장사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보조와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버스나 영업용 화물차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붙여 손쉽게 세수를 늘리는 정부의 대책에 한숨만 나온다.

▲정현경·목포시 연신동

오피니언

시설

정부 국책사업 '갈팡질팡'에 명드는 호남권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들이 정부의 원칙 없는 추진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확정해 놓고도 지역별 특화사업을 자체마다 펴주고 있어 호남권 선도사업만 멀뚱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가 지역 간 과정경쟁을 지양하고 권역별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 추진으로 호남권 선도사업은 '무너만 국책사업'으로 전락될 위기 처해 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 선도사업의 세부 핵심 프로젝트인 'LED 사업'에 적극 뛰어 들었다. 김천을 LED 하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한 술 더 떠 이지

최소 임금도 안 되는 다문화 영어강사 실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취업과 빠른 사회 정착을 위해 광주 서구청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다문화 여성 영어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강사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데다 강사가 되더라도 5개월 근무에, 월 보수가 28만 원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구청에 따르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 여성 19명이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영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돼 1주 일에 2시간 씩 5개월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된다.

정부 역시 말로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예산을 대폭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인당 1시간에 3만5000원씩 5개월 동안 140만 원으로 월 평균 28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5개월 후면 실직상태에

無等鼓

해적들의 말로(末路)는 거의 비참했다. 중세 이후 영국과 그 해외식민지에서는 해적들에게 교수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런던 텁스 강 북쪽 해안은 교수형이 치러지던 장소로 유명하다. 당시 텁스 강 부두는 우뚝 솟은 교수대 때문에 '사행부두'라고도 불렸다. 교수수에 처해진 해적들의 시체는 바다에 버려져 세차례 반복된 밀물과 썰물에 빙어진 뒤에 육지로 운반됐다. 이어 바닷물에 통통 부은 시체에 타르를 칠해 방부 처리를 하고, 해변의 교수대에 걸어놓았다.

대체적으로 암역 높았던 바닷물에 타르를 칠해 방부 처리를 하고, 해변의 교수대에 걸어놓았다.

대체적으로 암역 높았던 바닷물에 타르를 칠해 방부 처리를 하고, 해변의 교수대에 걸어놓았다. 최후는 교수형이었을 테지만, 현재로선 극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의 시각인 듯하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절대적인 금언으로 자리잡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총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포트로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중세 유럽이었다면 해적을 살인해도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 해적의 고생했으며, 포트로열의 몰락과 함께 해적의 전성시대도 막을 내렸다.

최후는 교수형이었을 테지만, 현재로선 극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의 시각인 듯하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절대적인 금언으로 자리잡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획

도시는 언제나 해적과 그들이 노획한 재물을 가득했고, 해변에는 여관과 술집, 도박장이 지천으로 깔려 불야성을 이뤘다. 1662년에 화폐주조 공장 까지 들어설 정도로 번창했던 포트로열은 그러나 30년 후인 1692년 대지진과 엄청난 해일의 습격을 받아 바다밑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악의 도시'라 신세계 죄악의 땅에 천여명이 놀라워졌다.

그리고 포트로열은 멀리 떨어진 고생했으며, 포트로열의 몰락과 함께 해적의 전성시대도 막을 내렸다.

최후는 교수형이었을 테지만, 현재로선 극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의 시각인 듯하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절대적인 금언으로 자리잡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획

도시는 언제나 해적과 그들이 노획한 재물을 가득했고, 해변에는 여관과 술집, 도박장이 지천으로 깔려 불야성을 이뤘다. 1662년에 화폐주조 공장 까지 들어설 정도로 번창했던 포트로열은 그러나 30년 후인 1692년 대지진과 엄청난 해일의 습격을 받아 바다밑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악의 도시'라 신세계 죄악의 땅에 천여명이 놀라워졌다.

그리고 포트로열은 멀리 떨어진 고생했으며, 포트로열의 몰락과 함께 해적의 전성시대도 막을 내렸다.

최후는 교수형이었을 테지만, 현재로선 극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의 시각인 듯하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절대적인 금언으로 자리잡은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총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